

한화, 미국 태양광기업 지분 인수

1366Technologies 지분 6.3% 매입 ... 다이렉트 웨이퍼 기술 개발

한화케미칼(대표 김승연·홍기준)이 미국 태양광기술 개발기업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관련사업을 강화하고 있다.

한화케미칼은 미국의 태양광 관련기술 개발기업인 1366Technologies의 주식 1000만주(6.3%)를 5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.

보스톤에 본사를 둔 1366Technologies는 잉곳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녹인 폴리실리콘(Polysilicone)에서 직접 웨이퍼를 생산하는 <다이렉트 웨이퍼>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2년 이내에 상업화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화케미칼은 다이렉트 웨이퍼 기술을 확보하면 태양전지 제조코스트를 30%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태양전지의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녹여 기둥 모양으로 굳힌 잉곳을 만든 후 얇게 썰어 제작하고 있다.

한화케미칼 관계자는 “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 개념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”이라며 “다이렉트 웨이퍼 기술로 태양전지 제조원가를 낮추면 그리드 패리티(Grid Parity)를 앞당길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앞서 한화케미칼은 8월 태양전지 모듈 생산능력이 세계 4위인 중국의 Solarfun Power를 인수한 바 있다.

한화그룹은 2020년까지 국내외에 6조원을 투자해 태양전지와 태양전지 모듈 생산능력을 4GW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20>